광주시립오페라단 창단공연 ‘오페라 갈라’

지휘자 리 신차오

테너 박지응

소프라노 임세경

소프라노 윤정난

28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카르멘’·‘사랑의 묘약’ 등 10개 작품
광주시립발레단 등 5개 단체 협업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오는 28일 창단기념공연 오페라 갈라(Opera Gala)를 통해 첫 출발을 알린다.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지난 8월 창단됐으며 정갑균 예술감독 위촉을 시작으로 하반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서울, 대구에 이어 지자체에서 만든 세 번째 오페라단이며 객원제로 운영된다.

광주시립오페라단 초대 예술감독 정갑균은 창단기념 공연답게 관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오페라 작품 9개의 주요 장면을 엄선한 갈라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의미를 살려 중국을 대표하는 리 신차오, 중국 출신의 소프라노 선 쑤웨이, 일본의메조소프라노 타니구치 무츠미를 초청했다.

국내 3대 오페라단인 국립오페라단·서울시립오페라단·대구오페라하우스 등의 추천을 받아 소프라노 임세경, 테너 루디 박(박지웅), 바리톤 한명원도 캐스팅했다.

광주·전남 출신인 소프라노 윤정난과 테너 김지운을 비롯한 소프라노 김선희·김진희·박수연, 메조소프라노 전진, 테너 김백호·윤병길·김홍태·강동명, 베이스 김일동이 무대에 오른다. 또, 광주의 영 아티스트를 발굴하고자 바리톤 양진영, 소프라노 박나래, 베이스 조바울도 무대에 오른다.

20~40대 해외 유학파 출신과 젊고 역량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대구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디오오케스트라’도 함께하며 또, 광주시립합창단과 남양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발레단 모두 5개 단체가 협업해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비제의 ‘카르멘’ ‘서곡’을 시작으로 베르디의 ‘아이다’ 무대에서는 임세경, 박지응, 김일동이 합창단과 무용단과 함께 ‘개선행진곡’을 선보인다.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나비부인’ 무대에서는 선 쑤웨이와 전진, 윤병길이 ‘너의 두 눈에 근심이 가득하네’ 등의 무대를 준비했다.

또, 롯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무대에서는 강동명이 ‘저기, 웃고 있는 하늘’을, 푸치니의 비극 ‘토스카’에서는 김선희가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를 노래한다.

‘투란도트’ 무대에서는 ‘공주는 잠 못이루고’를 테너 박지응의 목소리로 만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비제의 최고의 걸작 ‘카르멘’ 무대에서는 100여명의 합창단과 40여명의 무용단과 함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날 공연에 앞서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7시까지 대극장 옆 갤러리에서 정갑균 감독의 ‘오페라 토크’도 열린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4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헨젤과 그레텔’·‘아이다’ 등 분기별로 공연 선 보일 것”

정갑균 광주시립오페라단 초대 예술감독

정갑균 신입 시립오페라단장은 1990년 광주오페라단에서 ‘라보엠’으로 연출가로 데뷔한 후 동양연출가로는 최초로 이탈리아 토레 델 라고(Torre del Lago)에서 열린 제51회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연출한 ‘나비부인’을 비롯한 국내외에서 많은 작품을 연출했다. 제4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에서 연출상, 제9회 대구 국제오페라축제 오페라대상에서 예술상을 수상했으며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를 역임했다.

그는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초대 예술감독으로서 감회가 크다”며 “광주는 소중한 마음의 고향이다. 예술의 모태가 된 도시로의 귀환이라고 생각해 가슴이 벅차며 무한한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 성악공부를 하고싶어 무작정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를 찾아갔어요. 처음으로 성악을 시작하게 된 곳이 광주인 셈이죠. 개인적으로 광주는 예술의 고향인 셈입니다. 연출가의 업을 시작한 곳도 역시 광주였어요. 1990년 시민회관에서 열린 광주오페라단의 작품 ‘라보엠’을 맡으면서 연출에 첫 발을 내디뎠지요. 마음의 고향이자 예술적 고향인 광주에서 처음 생기는 오페라단을 맡게 돼 가슴이 벅차고 잘 이끌어야겠다는 의무감이 듭니다.”

정 감독은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오페라단 창단을 축하해줄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자 이번 오페라 갈라를 기획했다.

그는 “전 막을 올리는 오페라보다 10개 오페라의 하이라이트를 엮어 오페라를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개방한다는 취지에서 관람석을 모두 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내년에 선보일 공연도 준비중이다. 그는 “2018년 오페라 공연도 기획중이다. 분기별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동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아이다’, ‘마술피리’, ‘오페라 콘체르탄테’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다”며 “5년, 10년 뒤 시립오페라단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작품을 통해 시민과 교감하는 오페라단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제1회 광주광역시소년소녀합창제

22~23일 문예회관…15개팀 500여명 참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주관하는 제1회 광주광역시소년소녀합창제가 오는 22일과 2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첫 회를 맞는 합창제는 41년 전통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주축으로 광주 지역 합창단 총 15개 팀, 500여 명이 참가한다.

광주 지역 2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대상으로 참가팀이 선정됐다. 특히 달빛동맹으로 끈끈한 우정을 쌓아온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해 23일 무대를 빛낸다.

22일은 광주카톨릭평화방송 소년합창단, 살레시오초 합창단, 광주파랑새합창단, 광주교대부설초합창단, 광주수피아여중합창단, 광주송원초합창단, 광주동신여중합창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23일에는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꿈을 품은 메아리합창단, GFN광주영어방송소년소녀합창단,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 칸타빌레중창단, 광주어린이요들합창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공연한다.

이번 합창제에서는 이틀 동안 약 50여곡의 합창을 들려준다. 정통합창곡 ‘Kyrie’, 우리민요 ‘아리랑 모음곡’, 요들송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가요 ‘마법의 성’, 드라마 OST ‘풍문으로 들었소’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준비됐다. 무대의 마지막은 참가팀 전체가 연합합창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를 함께 부르며 장식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예비 큐레이터 김민지·김한라씨 첫 기획전

독립큐레이터 그룹 OverLab(이하 오버랩)은 지역 내 독립큐레이터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기획안 작성부터 예산편성, 전시 연출, 홍보 등의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 전시를 여는 게 목표다.

레지던시 참여자인 김민지(26), 김한라(26)씨가 예비 큐레이터로서 첫 전시회를 기획했다. 김민지씨는 18일부터 22일(오픈파티 18일 오후 6시~10시)까지 ‘Ar.txt’전을 기획했다. ‘Ar.txt’전은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기획으로 도예, 조각, 회화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는 김정모 작가와 협업하며 전시를 꾸몄다.

25~29일(오픈파티 25일 오후 4시~8시)까지 전시회를 여는 김한라씨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헤아려 보다’를 주제로 기획했다. 오버랩이 자리한 월산동 주민들이 키우는 다양한 화분으로 정원 형태의 전시공간을 꾸민 기획이다. 전시는 모두 오버랩에서 열린다. 문의 062-351-2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정모 작 ‘haunt3’

‘책으로 톡(Talk)하는 세상’…광주여성재단 21일 독서토론회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재단 내 북카페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책으로 톡(Talk)하는 세상’을 진행한다.

‘책으로 톡(Talk)하는 세상’은 여성재단 작은 도서관 북카페 은새암 추천도서를 중심으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 광주지역 성평등 문화플랫폼을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페미니스트 모먼트’ 공동저자인 김홍미리씨가 시민들과 독서토론을 진행되며 ‘페미니즘 고딕체 권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법’이라는 소주제로 집중토론도 한다. 무료 참여. 문의 062-670-053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